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몇이지?’, ‘이번 국어 시험 평균이 얼마야?’ 등의 질문을 한번쯤은 해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하는 질문 가운데 ‘평균’이라는 한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때 ‘평균’은 보편적인 것, 대표적인 것이며, 어떤 집단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평균이 정말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오늘 ‘평균에서 벗어난 삶’을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에서는 비행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들의 훈련을 강화했지만 사고가 줄지 않자, 결국 전문가를 부르게 됩니다. 인류학자였던 대니얼스는 4,063명의 조종사의 키와 가슴둘레, 팔 길이 등 조종석 설계상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의 신체 지수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냅니다. 이 평균값과 조종사 4,063명 각각의 신체 지수를 비교해 보니 10개 항목이 모두 평균에 속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종사는 팔 길이가 평균보다 길지만 다리 길이는 평균보다 짧은가 하면 또 어떤 조종사는 가슴둘레가 평균보다 넓은 편이지만 엉덩이둘레는 좁은 편으로 나타나는 식이었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비행기 조종석이 누구에게도 맞을 수 없는 조종석이 되어 버려 조종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체 지수조차 이렇게 각 부분이 다른데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성향에 이르면, 그 편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평균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평균에 이르지 못해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사람도, 평균적인 삶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 지적 능력, 삶의 모습 등에는 다양한 속성이 존재합니다. 키는 평균보다 크지만 팔 길이는 짧은 사람이 있듯이, 미술은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데 수학은 어려워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 행복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평균적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취향에 나를 대입한 것이지요. 이런 평균적 삶을 따르기보다는 타인과 구별 짓는 색다른 경험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1.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연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강연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청중의 태도 변화를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강연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위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듣기 전략에 따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듣기 전략	청중의 반응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 ○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조종석이 누구에게도 맞을 수 없었다는 점이 놀라웠어. ①
강연자가 활용한 자료의 오류를 판단하며 듣는다.	→ ○ 어떤 방식으로 조종사의 신체 지수 10개 항목의 평균을 냈을까? ②
강연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하며 듣는다.	→ ○ 사람들은 지적 능력의 평균보다는 신체 지수의 평균에 주목하는 경우가 더 많아. ③
강연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으며 듣는다.	→ ○ 강연자는 상품의 규격을 표준화할 때 평균이 유용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④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성찰하며 듣는다.	→ ○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조바심을 내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 ⑤

3.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강연 주제를 고려하여 <보기>의 ‘A 씨’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 씨는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린다는 베스트 메뉴를 선택하여 먹는다. 또한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안에서 책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편이다.

- ① 타인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특별한 기준을 찾아 선택해 보세요.
- ②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세요.
- ③ 복잡한 것들을 여러 단계에 거쳐 단순하게 만든 후에 양자택일해 보세요.
- ④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선택에 필요한 의사 결정의 시간을 줄여 보세요.
- ⑤ 짧은 기간에 많이 팔린 것보다는 오랫동안 잘 팔리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4~7] (가)는 인터뷰의 일부이고, (나)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신문 동아리 기자 1학년 ○○○입니다. 지난 환경의 날에 학생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셨잖아요. 특히 ‘업사이클링’ 행사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학생 회장: 반갑습니다. ‘업사이클링’ 행사에 참여했었나요?

학생 기자: 네.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 주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버려진 현수막이 또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A]

학생 회장: 업사이클링을 제대로 체험하셨네요. 먼저 업사이클링의 단어 뜻을 설명해 볼게요.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이 합쳐진 말로, 버려지거나 다 쓴 물건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버려진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

학생 기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좋은 일이군요. 선배님은 업사이클링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회장: 무엇보다도 쓸모없어진 재료나 물건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쓰레기의 양을 줄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죠. 또한 다양한 디자인을 접목한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기자: 그래서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군요. 저희 누나가 쓰는 가방도 폐현수막으로 만든 것이더라고요. 이번 축제에서도 업사이클링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하나요?

학생 회장: 버려진 방수천을 활용해 필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학생 기자: 아, 저번 행사와 같은 활동이군요?

학생 회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멸종 위기 물고기의 사진들을 보여 주며) 이번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멸종 위기의 물고기 모양을 디자인한 필통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학생 기자: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겠군요.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학생회에서 이런 업사이클링 행사들을 기획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C]

학생 회장: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업사이클링 활동을 경험해 봄으로써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은 실천이 결국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학생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아주 유익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회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나)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그동안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했던 것을 넘어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그런데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폐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보자.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합쳐진 말로, 버려지거나 다 쓴 물건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들도 업사이클링 상품들을 ㉡ 개시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이미 이러한 활동은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환경의 날에 우리 학교의 학생회에서 진행한 ‘폐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와 이번 축제 때 우리가 하게 될 ‘방수천을 활용한 필통 만들기’도 업사이클링과 ㉢ 관련되어진 활동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버려진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폐타이어를 활용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만든 것도 폐타이어를 쓰레기가 아닌 신발의 밑창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 또한 상품의 원래 용도에 맞는 사용법을 지켜 사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 평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 있는 재활용을 고민함으로써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업사이클링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4. [A]~[C]의 답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학생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화제와 관련한 활동에서 느낀 점을 말하고 있다.
- ② [B]: 학생 기자는 학생 회장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듣고 있다.
- ③ [B]: 학생 회장은 학생 기자의 요청에 따라 화제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④ [C]: 학생 회장은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행사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 ⑤ [C]: 학생 기자는 학생 회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5. (가)에서 학생 기자가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업사이클링의 단어 뜻은 무엇인가요?
- ② 업사이클링 관련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 ③ 업사이클링에 사회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④ 업사이클링 상품에 활용된 다양한 디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⑤ 업사이클링과 관련하여 이번 축제에서 계획한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다음은 (나)를 쓴 과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글쓰기 과정	글쓰기 계획
내용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야겠어. …… ①
내용 조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된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 ② ○ 글의 끝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언급해야겠어. …… ③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업사이클링 활동을 설명해야겠어. …… ④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야겠어. … ⑤

7.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 ② ㉡: 단어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출시’로 고친다.
 - ③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관련된’으로 고친다.
 - ④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업사이클링을’을 추가한다.
 - ⑤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 쓰기.
- 글의 목적: 학교 건물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학생의 초고]

여러분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인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학교는 학생에게 중요한 곳이지만 현재 학교 건물의 공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건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 활동실, 강당, 식당, 도서관 등의 다양한 시설이 학교 건물 안에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들어선 땅의 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학교 건물은 점차 고층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매번 몇 층의 계단을 내려가 밖에 나갔다가 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거의 교실에서만 지내게 되었고, 운동장에 나가거나 야외 활동을 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교실의 천장 높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천장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실은 보통 2.6미터 정도의 높이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천장 높이를 높게 하면 층간 높이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천장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 수가 줄고 빈 교실이 생기면서 학교 건물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교실을 되도록 저층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운동장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거나 학교 정원을 거닐며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빈 교실은 천장을 기존보다 높게 만들어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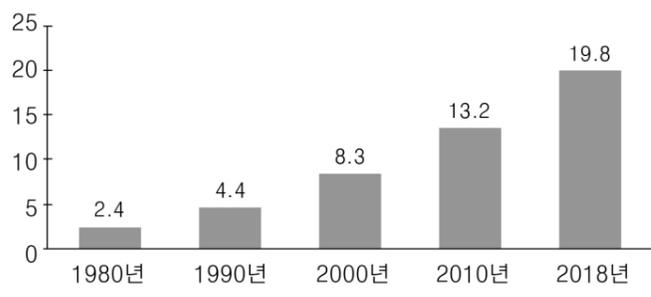
- ① 새로운 이론들을 비교하며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 ③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며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9.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통계 자료 및 설문 조사 분석 자료

1.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교 실내 건물 면적(m²)



연도	면적(m ²)
1980년	2.4
1990년	4.4
2000년	8.3
2010년	13.2
2018년	19.8

2. 쉬는 시간 활용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자료

A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쉬는 시간에 주로 어디에 있나요?'라는 질문에 '교실 등 실내'라고 답한 학생이 73%, '운동장 등 실외'라고 답한 학생이 27%였음. '교실 등 실내'라고 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교실에서 운동장까지 내려가기 너무 멀어서'라는 답변이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나) 신문 기사

천장의 높이와 창의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운 메이어스-레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각각 2.4미터, 2.7미터, 3미터의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 결과, 3미터 천장의 공간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낮은 천장의 공간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에 비해 창의적 문제를 2배나 더 많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문가 인터뷰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교실이나 복도 등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 실외로 나가 바깥 풍경을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가)-1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이 늘어났다는 내용의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 ② (가)-2를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주로 교실에서 지내게 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나)를 교실 천장의 높이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④ (가)-1과 (나)를 학교 실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천장 높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함을 밝히는 추가 자료로 활용한다.
- ⑤ (가)-2와 (다)를 교실에서 실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10. <보기>는 초고를 쓴 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을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에 아래의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프랑스는 공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 디자인의 학교 건축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도 공간과 생활의 관계를 생각해 학교 건물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주장을 구체화하는 계획과 개선 방안을 요약할 것.
- ② 주장의 실현 가능성과 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추가할 것.
- ③ 주장의 원인이 되는 배경과 개선 방안의 한계를 밝힐 것.
- ④ 주장을 강화하는 사례와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를 포함할 것.
- ⑤ 주장에 대한 예상 반응과 개선 방안의 긍정적 결과를 제시할 것.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홀쭉이'와 '홀쭉기' 중 무엇이 올바른 표기일까? 이런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을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그러나 단어나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리가 바뀌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함께 제시된 것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이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지라도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의 단어와 문장은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단. 형태소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 실질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와, 접사나 용언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예를 들어 '꽃나무', '덧개'를 보면 실질 형태소(꽃, 나무)끼리 만나 이루어지거나 실질 형태소(덧-)에 형식 형태소(-개)가 붙어 단어가 만들어진단. 또한 '모자를 쓰다'에서는 실질 형태소(모자, 쓰-)에 각각 형식 형태소(를, -다)가 붙어 문장이 만들어진단.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할까? 체언에 조사가 붙거나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소리가 바뀔 때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예를 들어 '꽃이'는 [꼬치]로, '잡아'는 [자바]로 발음되지만 각각 '꽃이'와 '잡아'와 같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에 ‘들어간다’처럼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드러나다’처럼 앞말이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어근에 접사가 붙어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때에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예를 들어 ‘삶’은 ‘살다’의 어간 ‘살-’에 접미사 ‘-ㅁ’이 붙어서 파생된 명사로 [삼:]이라 발음되지만 ‘삶’으로 적는다. 그리고 ‘많이’는 ‘많다’의 어간 ‘ 많-’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마:니]라고 발음되지만 ‘많이’로 적는다. 이처럼 ㉠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용언의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먹을 것은 많았지만, 마음 편히 먹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a) (b) (c)

○ 집으로 돌아오다가 너무 지쳐 쓰러질 뻔했다.
 (d) (e)

- ① a는 용언의 어간 ‘먹-’에 어미 ‘-을’이 결합했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었군.
- ② b는 체언 ‘것’에 조사 ‘은’이 붙었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었군.
- ③ c는 실질 형태소 ‘수’와 형식 형태소 ‘만’, ‘은’이 결합했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았군.
- ④ d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었군.
- ⑤ e는 앞말이 본뜻에서 떨어졌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았군.

12. 윗글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
- ② ㉠: 모두들 그의 정신력을 높이 칭찬했다.
- ③ ㉡: 나는 그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 ④ ㉡: 그는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닦았다.
- ⑤ ㉢: 그들은 새로 만든 도로의 너비를 측정했다.

13.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중 일부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ㅈ, ㅊ, ㅌ), ㅌ(ㄷ, ㅌ, ㅍ, ㅈ, ㅊ,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ㅍ,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ㅍ,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 |
|----------|----------|
| ㉠ | ㉡ |
| ① 늦게[늘게] | 엎다[언따] |
| ② 옆집[엽집] | 있고[인꼬] |
| ③ 국수[국쑤] | 늡다[늑따] |
| ④ 묶어[무꺼] | 껴안다[껴안따] |
| ⑤ 앓다[안따] | 머금다[머금따] |

14. <보기>를 참고할 때,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등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 그대로 옮겨 표현하는 것을 ‘직접 인용’, 원래의 내용을 전달하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 한다.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와 종결 표현에 따른 문장 부호를 사용하고, 조사 ‘라고’를 붙여 표현한다. 간접 인용은 문장 부호 없이, 앞말의 종결 어미에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한다. 간접 인용문은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 인용문과 비교할 때 인칭,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 어제 진우는 “내일 떠나고 싶다.”라고 했다.
 → 어제 진우는 오늘 떠나고 싶다고 했다.

㉡ 아들이 나에게 “잠시만 집에 계세요.”라고 했다.
 → 아들이 나에게 잠시만 집에 있으라고 했다.

㉢ 그 바다에서 아영이는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라고 했다.
 → 그 바다에서 아영이는 자기는 그곳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 ① ㉠: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문에서 ‘고’로 달라졌다.
- ② ㉠: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시간 표현 ‘내일’이 간접 인용문에서 ‘오늘’로 달라졌다.
- ③ ㉡: 직접 인용문에서 실현된 주체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문에서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뀌었다.
- ④ ㉢: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1인칭이 간접 인용문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다.
- ⑤ ㉢: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지시 표현 ‘이곳’이 간접 인용문에서 ‘그곳’으로 달라졌다.

15. <보기>는 단어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다¹ ㉠
 「1」 흐리거나 곳은 날씨가 맑아지다.
 ㉡ 비가 개다.
 「2」 (비유적으로) 언짢거나 우울한 마음이 개운하고 활가 분해지다.
 ㉢ 마음이 활짝 개다.

개다² ㉣ 【…을】 【…을 …에】
 가루나 덩이진 것에 물이나 기름 따위를 쳐서 서로 섞이 거나 풀어지도록 으깨거나 이기다.

개다³ ㉤ 【…을】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 개다.
 ㉥ 이부자리를 개고 방을 청소하다.

- ① ‘개다¹’, ‘개다²’, ‘개다³’은 동음이의어이다.
- ② ‘개다¹」 「1」의 용례로 ‘기분이 개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개다²’의 용례로 ‘가루약을 찬물에 개어 먹다.’를 들 수 있다.
- ④ ‘개다³’의 반의어로 ‘펴다’를 들 수 있다.
- ⑤ ‘개다³’은 ‘개다¹’과 달리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철학은 ㉠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했다. 그에게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누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 상정하고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로 여겼다. 반면에 현실 세계의 존재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 이데아와 달리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달리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성 중심의 사유를 전개했다.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근대에 이르러 니체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헤

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신 중심의 초월적 세계, 합리적 이성 체계 모두를 부정했다. 니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진리를 영원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현실 너머의 이상 세계와 초월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허무에 ㉢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니체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본질을 ㉣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힘에의 의지’로 보았다. 니체가 말하는 ‘힘에의 의지’는 주변인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끌어 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이러한 ‘힘에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창조적 생성 작용을 하는데, 그 최고의 형태가 예술이라고 했다. 그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을 중시하였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힘에의 의지’로 보았다.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회화에서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 수용했다.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을 따르지 않았다.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이었다. 그러나 니체의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사실주의 미학에서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여겼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었기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매 순간 변화하는 감정을 중시했다. 그래서 대상의 비례와 고유한 형태를 왜곡하고, 색채도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과장해서 그리거나 대비되는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했다. 또한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임으로써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이 현실 공간의 재현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에 ㉦ 반발하며 예술가로서의 감정적, 주관적인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보았다. 그들은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불안, 공포, 고뇌 등을 예술로써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 주었다. 결국 화가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주의는 니체의 철학을 근거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형이상학적 이원론: 세계를 경험의 세계와 경험을 초월한 세계로 나누고, 사물의 본질과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를 통해 연구하는 이론.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니체의 철학적 개념을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 ② 예술에 대한 니체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받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과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예술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가 니체에 의해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 ⑤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헤라클레이토스와 니체는 ㉠이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 ②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은 ㉠이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 ③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있다고 보았다.
- ④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의 생성을 긍정했다.
- ⑤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8. 윗글에 나타난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 ②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 ③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감정을 중시했다.
- ④ 예술가로서의 주관적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했다.
- ⑤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을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19. 윗글에 나타난 니체의 사상과 연결 지어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독일 표현주의 화가인 키르히너의 <해바라기와 여인의 얼굴(1906)>은 창가에 놓인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화가의 내면이 잘 표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바라기는 노란색, 꽃병은 녹색, 배경은 주황색의 화려한 원색으로 그려져 있고, 해바라기 앞의 여인은 슬프고 우울해 보인다. 활짝 핀 해바라기의 윤곽은 빨갛고 두터운 선으로 그려져 해바라기의 노란색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인보다 뒤에 있는 해바라기 꽃병이 더 크게 그려진 화면 구성을 보이고 있다.



- ① 여인을 슬프고 우울해 보이게 그린 것을 보니 인간은 결코 허무를 극복할 수 없다는 니체의 철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해바라기를 강조한 화면 구성을 보니 현실 너머의 이상 세계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긴 니체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해바라기의 노란색과 윤곽의 빨간색을 대비한 것을 보니 초월적 세계를 재현한 것이 현실 세계라는 니체의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해바라기, 꽃병, 배경 등을 화려한 원색으로 그린 것을 보니 감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여겼던 니체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을 원근법에 어긋나게 그린 것을 보니 인간은 자기 주변의 사물을 지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니체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
- ②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③ ㉢: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 ④ ㉣: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 ⑤ ㉤: 어떤 상태나 행동 따위에 대하여 거스르고 반항함.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직장인 A 씨는 셔츠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주일 간 입을 셔츠를 제공 받고, 입었던 셔츠는 반납한다. A 씨는 셔츠를 직접 사러 가거나 세탁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회원 가입 및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배송 받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 '구독경제'라고 한다.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만 적용되던 구독 모델은 최근 들어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소유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구독 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 정기 배송 모델인데,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컵, 식품 등의 생필품을 지정 주소로 정기 배송해 주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 무제한 이용 모델로, 정액 요금을 내고 영상이나 음원, 각종 서비스 등을 무제한 또는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세 번째 유형인 ㉣ 장기 렌탈 모델은 구매에 목돈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상품을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구독경제의 확산 현상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효용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구독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는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유하기 이전에는 사용해 보지 못하는 상품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독경제를 이용하면 값비싼 상품을 사용하는 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상품 구매 행위에 들이는 시간과 구매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구독경제의 확산이 경제 활동의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독하는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고정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구독 모델 이전에 얻었던 수익에 비해 낮은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는 건전한 수익 모델을 연구하여 자신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독경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생산자는 구독경제를 통해 이용 고객들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소비자는 구독경제를 이용함으로써 상품 구매 행위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③ 소비자는 구독경제를 통해 회원 가입 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
- ④ 생산자는 구독경제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 ⑤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려는 소비자의 심리가 구독경제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2. 윗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 소비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제 모델이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유경제의 영역은 주택, 의류 등의 유형자원에서 시간, 재능 등의 무형자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 ① ㉠은 ㉡과 달리 여러 사람이 서비스를 공유하는군.
- ② ㉠은 ㉡과 달리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군.
- ③ ㉡은 ㉠과 달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구매 비용을 줄이는군.
- ④ ㉠과 ㉡은 모두 유형자원보다 무형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군.
- ⑤ ㉠과 ㉡은 모두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용에 관심을 가지는군.

23.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서비스
- ② ㉠: 월정액을 지불하고 주 1회 집으로 식재료를 보내 주는 서비스
- ③ ㉡: 월 구독료를 내고 읽고 싶은 도서를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
- ④ ㉡: 정액 요금을 결제하고 강좌를 일정 기간 원하는 만큼 수강할 수 있는 웹사이트
- ⑤ ㉢: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에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기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기레인지의 용기를 가열하는 방식에 따라 하이라이트 레인지와 인덕션 레인지로 나눌 수 있다. 하이라이트 레인지는 상판 자체를 가열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 직접 가열 방식이고, 인덕션 레인지는 상판을 가열하지 않고 전자기유도 현상을 통해 용기에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 유도 가열 방식이다.

하이라이트 레인지는 주로 니크롬으로 만들어진 열선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열선의 열을 통해 그 위의 세라믹글라스 판을 직접 가열한다. 이렇게 발생한 열이 용기에 전달되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된다. 하이라이트 레인지는 비교적 다양한 소재의 용기를 쓸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아 조리 속도가 느리고 상판의 잔열로 인한 화상의 우려가 있다.

인덕션 레인지는 표면이 세라믹글라스 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나선형 코일이 설치되어 있다. 전원이 켜지면 코일에 2만Hz 이상의 고주파 교류 전류가 흐르면서 그 주변으로 1초에 2만 번 이상 방향이 바뀌는 교류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위에 도체인 냄비를 놓으면 교류 자기장에 의해 냄비 바닥에는 수많은 폐회로*가 생겨나며 그 회로 속에 소용돌이 형태의 유도 전류인 맴돌이전류가 발생한다. 이때 흐르는 맴돌이전류가 냄비 소재의 저항에 부딪혀 줄열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의해 냄비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맴돌이전류의 세기는 나선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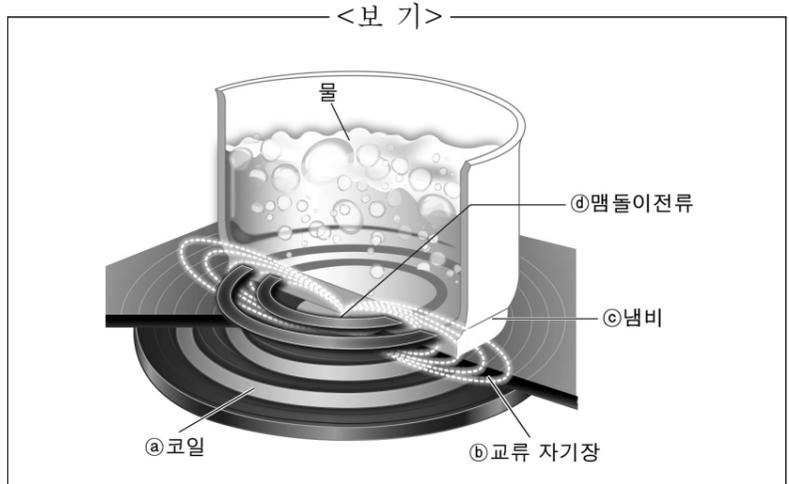
인덕션 레인지의 가열 원리는 강자성체의 자기 이력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물체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자화라고 하며, 자화된 물체를 자성체라고 한다. 자성체의 자화 세기는 물체에 가해 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커지다가 일정값 이상으로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이를 자기 포화 상태라고 한다. 이때 물체에 가해 준 자기장의 세기를 줄이면 자화의 세기도 줄어들기 시작하며, 외부의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석의 성질도 사라진다. 그런데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어도 자화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줄어들게 되고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어느 정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 이력 현상이라고 하며 자성체에 남아 있는 자화의 세기를 잔류 자기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 가해 준 외부 자기장의 역방향으로 일정 세기의 자기장을 가해 주면 자화의 세기가 0이 되고, 자기장을 더 세게 가해 주면 반대쪽으로 커져 자기 포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자화의 세기는 일정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를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자성체의 온도를 높인데, 이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자기 이력 곡선의 내부 면적과 비례한다. 만약 인덕션에 사용하는 냄비의 소재가 강자성체인 경우, 자기 이력 현상으로 인해 냄비에 추가로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열 방식 때문에 인덕션 레인지는 음식 조리 때 필요한 열을 낼 수 있도록 소재의 저항이 크면서 강자성체인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리 시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직접 가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순식간에 용기가 가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판이 직접 가열되지 않기 때문에 발화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뜨거운 상판에 의한 화상 등의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 폐회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구성된 회로.
* 줄열 효과: 도체에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도체의 저항 때문에 열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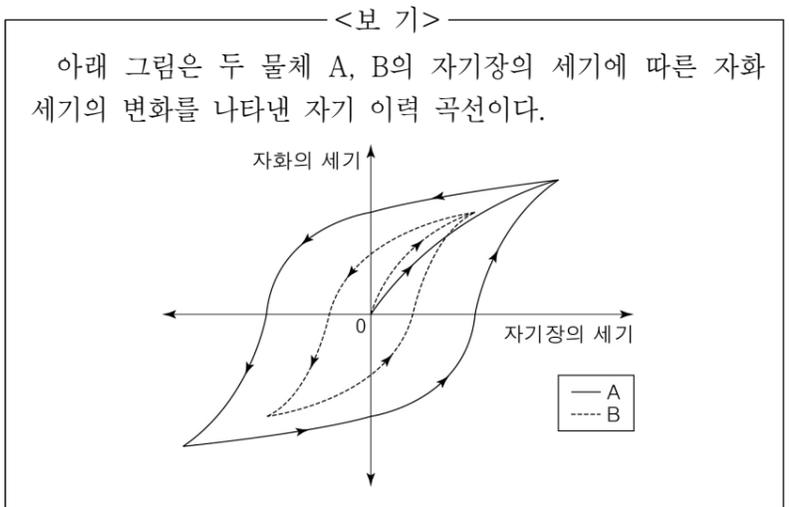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유도 전류를 이용하여 용기를 가열한다.
 - ② ㉡은 상판을 가열하여 그 열로 음식을 조리한다.
 - ③ ㉠은 ㉡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상의 위험이 적다.
 - ④ ㉠은 ㉡과 달리 빠른 시간 안에 용기를 가열할 수 있다.
 - ⑤ ㉡은 ㉠보다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소재에 제약이 많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전기레인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고주파 교류 전류가 흐르면 ㉣이 만들어지는군.
- ② ㉣의 영향을 받으면 ㉡의 바닥에 ㉠이 발생하는군.
- ③ ㉡ 소재의 저항이 커지면 ㉣의 세기도 커지겠군.
- ④ ㉠의 세기는 ㉢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군.
- ⑤ ㉠이 흐르면 ㉡ 소재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군.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석의 성질을 지닌다는 점에서 A와 B는 모두 인덕션 레인지 용기의 소재로 적합하겠군.
- ② A 소재의 용기 외부에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크기는 계속 증가하겠군.
- ③ 인덕션 레인지의 전원을 차단했을 때 A 소재의 용기가 B 소재의 용기보다 잔류 자기의 세기가 더 크겠군.
- ④ 용기의 잔류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B 소재의 용기보다 A 소재의 용기에 더 큰 세기의 자기장을 가해 주어야겠군.
- ⑤ B 소재의 용기는 A 소재의 용기보다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적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에는 외부의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체의 자연치유력 중 하나인 ㉠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다.

평소에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오토파지가 최소한으로 일어나는데,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균에 감염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밥을 제때에 먹지 않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는다. 이외에도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 이를 이중막으로 둘러싸 작은 주머니를 만든다.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솜’이라고 ㉡ 부른다. 오토파고솜은 세포 안을 뒹뒹 떠다니다가 리소좀을 만나서 합쳐진다. ‘리소좀’은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구형의 구조물로 그 속에 가수분해효소를 가지고 있어 오토파지 현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오토파고솜과 리소좀이 합쳐지면 ‘오토파고리소좀’이 되는데 리소좀 안에 있는 가수분해효소가 오토파고솜 안에 있던 쓰레기들을 잘게 부수기 시작한다.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막 안에 들어 있던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된다.

이러한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세포 안에 쌓이면서 세포 내 항상성이 무너져 노화나 질병을 초래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오토파지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자연치유력에는 오토파지 이외에도 ‘면역력’, ‘아포토시스’ 등이 있다. ‘면역력’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 ‘아포토시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으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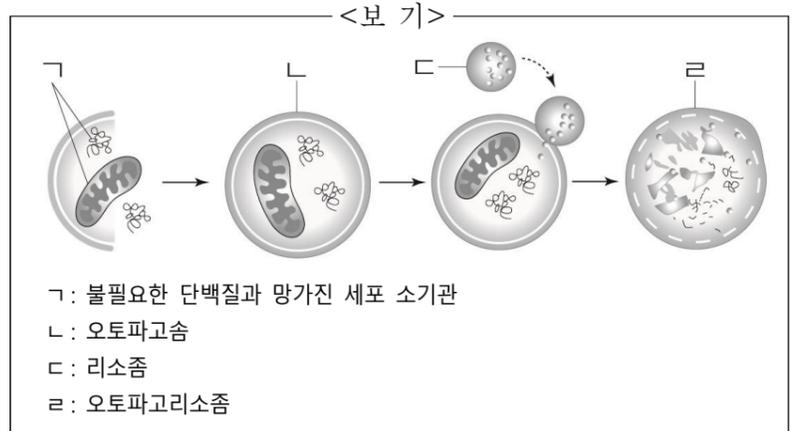
* 세포 소기관: 세포핵, 골지체, 소포체, 리보솜, 리소좀 등의 세포 안에 들어 있는 작은 기관들.

* 항상성: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런 현상.

27.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포의 재생 능력
 - 리소좀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② 인체의 자연치유력
 - 오토파지의 원리를 중심으로
- ③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 세포의 면역력을 중심으로
- ④ 노화를 막기 위한 방법
 - 아포토시스의 원리를 중심으로
- ⑤ 우리 몸의 자기 면역 방어
 -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중심으로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세포 안에 가이 쌓이면 오토파지가 일어나겠군.
- ② 나 은 가을 이중막으로 둘러싸 작은 주머니로 만든 것이겠군.
- ③ 나이 다과 결합하면 나 안의 가수분해효소가 가을 잘게 분해하겠군.
- ④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러 안의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오겠군.
- ⑤ 러에서 나온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재활용되겠군.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세포 소기관보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 ② ㉢은 ㉠과 달리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함으로써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 ③ ㉢은 ㉠과 달리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발생한다.
- ④ ㉠과 ㉢은 모두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다량으로 얻기 위해 작동한다.
- ⑤ ㉠과 ㉢은 모두 작동 과정에서 세포가 분해되어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30. 문맥상 의미가 ㉔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 ②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③ 그 가게에서는 값을 비싸게 불렀다.
- ④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를 아노미라고 부른다.
- ⑤ 그녀는 학교 앞을 지나가는 친구를 큰 소리로 불렀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백성들의 어려움이여, 백성들의 어려움이여	蒼生難蒼生難
흉년 들어 ㉠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구나	年貧爾無食
㉡ 나는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있어도	我有濟爾心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없구나	而無濟爾力
백성들의 괴로움이여, 백성들의 괴로움이여	蒼生苦蒼生苦
날이 추워 네가 이불이 없을 때	天寒爾無衾
㉢ 저들은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있어도	彼有濟爾力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없구나	而無濟爾心
원컨대, 잠시라도 소인배의 마음을 돌려서	願回小人腹
군자의 생각을 가져 보게나	暫爲君子慮
군자의 귀를 빌려	暫借君子耳
백성의 말을 들어 보게나	試聽小民語
백성은 할 말 있어도 임금은 알지 못하니	小民有語君不知
오늘 백성들은 모두 살 곳을 잃었구나	今歲蒼生皆失所
궁궐에서는 매양 백성을 걱정하는 조서 내리는데	北闕雖下憂民詔
지방 관청에 전해져서는 한갓 헛된 종이 조각	州縣傳看一虛紙
서울에서 관리를 보내 백성의 고통을 물으려	特遣京官問民瘼
역마로 날마다 삼백 리를 달려도	駟騎日馳三百里
백성들은 문턱에 나설 힘도 없어	吾民無力出門限
어느 겨를에 마음속 일을 말이나 하겠소	何暇面陳心內事
비록 한 고을에 한 서울 관리 온다고 해도	縱使一郡一京官
서울 관리는 귀가 없고 백성은 입이 없다네	京官無耳民無口
급회양* 같은 착한 관리를 불러다가	不如喚起及淮陽
아직 죽지 않은 백성을 구해볼만 못하리라	未死子遺猶可救

- 어무적, 「유민탄(流民歎)」 -

* 급회양: 중국 한나라 때 선정(善政)을 베푼 것으로 유명한 태수.

(나)

내 이미 **백구** 잊고 백구도 **나**를 잊네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꼬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맞이라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려문
 네 귀를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루어 달 띄우네
 맑으면 갓끈 씻고 흐리거든 발 씻으리
 어찌타 **세상 사람 청탁(淸濁)*** 있는 줄 모르는고
 - 이별,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 -

* 네 귀를~못 먹이리: 벼슬 제안을 듣고 귀가 더럽혀졌다며 영수에 귀를 씻은 허유와 그 물을 소에게도 먹이지 않으려 했다는 소부의 고사에서 차용한 것임.

* 청탁: 맑음과 흐림을 아울러 이르는 말.

3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선경후정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을 원망하고 있다.
- ② ㉢은 ㉠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③ ㉣은 ㉢이 군자와 같은 생각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 ④ ㉢은 ㉠의 삶을 구제할 힘을 지니고 있다.
- ⑤ ㉣은 ㉠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나)는 갑자사화로 인해 유배되었다 풀려난 작가가 옥계산에 은거하며 쓴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풍류를 즐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분별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 ① ‘백구’와 ‘나’가 서로 잊어 누군지 모른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과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② ‘빈 강’에서 쓸쓸해 하는 모습에서 유배되었다 풀려나도 ‘득 찾는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화자의 현실이 드러나는군.
- ③ ‘공명’을 ‘해진 신’에 비유한 것에서 화자가 세속적 삶의 가치를 멀리하고 있음이 드러나는군.
- ④ ‘옥계산’에서 ‘물’, ‘달’과 함께 지내는 모습에서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⑤ ‘세상 사람’을 ‘청탁’을 모르는 사람들로 여기는 것에서 맑고 탁함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 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구성*은 산을 넘는 육천 리요

[B] 물 맞아 함빡히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C] 삭주구성은 산 너머
 먼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D]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며 아니합디까

[E]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밤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구성은 산 너머
 먼 육천 리

- 김소월, 「삭주구성(朔州龜城)」 -

*삭주구성: '삭주'와 '구성'은 평안북도에 있는 지역. '구성'은 김소월의 고향임.

(나)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나가 보니 아낙네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릎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의 등에 업힌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 논두렁에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를 둘렀습니다

진흙길을 따라가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당신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빨밭에서 흙투성이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찾은 것은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센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삽에 찍힌 연뿌리의 동체에서 굶다란 물관 구멍을 통해 사라진 것은 도로(徒勞)*뿐인 한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목청을 다해 불러도 한사코 당신은 삽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 이성복, 「당신」 -

*도로: 헛되이 수고함. 보람 없이 애씀.

(다)

담장 위 장미가 붉은 혀를 깨물고 있다. 비누 냄새 풍기는 하수도 물이 길 따라 흘러내린다. 물소리도 길 따라 휘어지며 흘러내린다. 저녁 식사 시간 골목길은 음식 냄새들의 유원지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뜯고 있던 고양이가 도망간다.

전봇대에는 가스 배달, 중국집 전화번호 스티커가 신속히 붙는다. 한때 골목대장이었던 아이가 가장이 되어 아파트 경비하러 급히 내닫는다. 처녀가 힐끗 뒤돌아본다. 사내의 발짝 소리가 멈칫한다. 두부장수가 리어카를 세워 놓고 더 좁은 골목길로 종을 울리며 들어가자 붉은 장화를 신은 비둘기 분대가 후드득 리어카에 낙하한다. 아침 일곱 시, 더 넓은 골목길에 가 살기 위하여 직장 나가는 샐러리맨들의 발짝 소리가 발짝 소리에 밟힌다. 얼어붙은 길 위에 던진 연탄재가 부지직 소리를 낸다. 허리가 낮처럼 흰 할머니가 숨이 찬지 허리는 퍼지 못하고 고개만 들고 숨을 고른다. 가로등이 켜지고 나방 그림자가 벽에 부딪친다.

(중략)

건축가 이일훈 선생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강의 중 슬라이드를 보는 시간이 있었다. 고건축물에서 현대 최첨단 건축물까지 다양한 건축물 설명을 듣는 도중 느닷없이 한적한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시골 방앗간 풍경이 떴다. 이 선생은 잠깐 사이를 두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방앗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한 건축물을 만났기 때문이죠. 장식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양철 지붕만 올려놓았지만, 여기 어디 버릴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가슴이 찡했다. 나도 어느 골목길에서였던가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아 보았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나도 완벽한 골목길을 만났었다. 그 골목길은 밥을 먹고 있는 방이, 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이, 달팽이만한 초인종 달린 대문이 양쪽으로 잇달아 있었다. 이 골목은 담장이 없어 길이 담장이구나. 길이 담장이 될 수 있다니! 이렇게 평화롭고 완벽한 담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완벽한 담장을 가진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니. 불신의 산물로 세워지는 담장과,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믿음으로 세운 이 길 담장과의 그 어마어마한 차이. 길 담장 체험 후 나는 웬지 모르게 골목길이 건강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도 그런 것이,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 골목길이 어떤 길인가!

노동을 마치고 술 취해 귀가하던 가장이, 아내와 자식새끼들 생각에 머리채를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바로 잡던 길 아닌가. 만삭의 아낙네들이 한 손에 남편과 자식새끼들에게 먹일 시장바구니를 들고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향해 걷던 길이 아닌가. 철없는 아이들 즐겁게 뛰어 노는 웃음소리가 흘러넘치는 길이 아닌가. 밥숟가락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 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길 아닌가.....

- 함민복, 「길의 열매 집을 매단 골목길이어」 -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비적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35.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물로 사흘 배 사흘’을 통해 삭주구성이 먼 곳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B]에서는 ‘높은 산’을 반복하며 삭주구성이 가기 어려운 곳임을 나타내고 있군.
- ③ [C]에서는 삭주구성이 더 떨어진 ‘꿈’속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④ [D]에서는 ‘님을 둔 곳이길래’를 통해 삭주구성을 그리워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군.
- ⑤ [E]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나는 구름’을 통해 삭주구성에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고 있군.

3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의 화자는 노동을 하며 고단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고달픈 처지와 삶의 상처를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얼어붙은 땅’은 아낙네들이 일하는 것을 더 고단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물이 마르지 않은 뺨밭에서 일하는 ‘당신’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화자가 ‘당신의 상처’를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었다고 한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도로뿐인 한 생애’는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달픈 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화자가 ‘목청을 다해’ 당신을 부른 것은 삶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지나온 삶에 대한 그리움의 공간이다.
- ② ㉠은 ㉡과 달리 실현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38.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에서 ㉠ 글쓴이는 골목길의 다양한 풍경과 그 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글쓴이는 시골 방앗간이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이일훈 선생의 강의에 공감하며, ㉢ 자신이 만났던 완벽한 골목길을 떠올리게 되었다. ㉣ 이일훈 선생의 강의는 글쓴이가 골목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발견하고 후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 글쓴이는 골목길을 우리들의 삶 때가 묻은 길이라고 표현하며 골목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는 ‘나’는 주인 아줌마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자 찾김에 가게의 봉숭아 화분을 망가뜨린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은 용우의 도움을 받아 밀린 임금을 받아 내려고 한다.

어느새 모여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아줌마가 악을 쓴다.

“대드는 게 아니고, 돈 달라고 하는 건데요.”

용우도 지지 않는다. ㉠ 삶의 현장이 용우를 이렇게 단련시켰다. 그런데 나 이민수는 뭐란 말인가.

“자아, 그래, 돈 줄란다. 나한테 대드는 꼴은 밉지만 그래도 친구랍시고 와서 거드는 것이 가상해서 내가 돈을 주긴 준다 마는……. 가만있어봐라, 아이 민수야, 니 지난번에 말도 안 하고 무단결근한 날 있었지? 그것도 하필 제일 바쁜 날에.”

“말하고 빠졌는데요.”

㉡ 그날은 학교 폭력 문제로 학원이고 알바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학교 끝나고 모두 남으라고 담임이 오금을 박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날 담임에게 기합을 받았고 나는 분명히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단지 아줌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 그런데 이제 와서 무단결근이라니.

“무단결근 시 이틀 치 일당 제한다는 약속 안 있었지?”

나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그리고, 망가진 화분 값은 당연히 민수 니가 물어야겠지? 자아, 그러면 얼마야, 삼천 곱하기 이십며칠…….”

아줌마와의 담판은 지루했다. 용우는 삼천칠백칠십 원을 들이냈고 아줌마는 끝까지 삼천 원을 고수했다. ㉣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했고 나는 웬일인지 너무도 피곤해서 알바비고 뭐고 다 그만두고만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문득, 내가 망가뜨린 봉숭아 화분에 눈이 갔다. 화분은 깨졌지만 봉숭아는 다행히 아직 살아 있었다. 뿌리에 흙덩이를 감은 채 넘어진 봉숭아는 천연덕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문득 봉숭아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봉숭아는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봉숭아를 키우는 떡볶이집 아줌마는 왜 아름답지 않을까. ㉤ 아줌마가 원래부터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원래부터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아름다운 꽃을 기를 수 있을까? 아줌마에게도 이 꽃처럼 아름다운 때가 있거나 했을까. 내가 한참 돈보다 꽃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천지를 진동하는 아줌마의 울음소리가 났다.
 “내가야, 내가야, 저놈의 쥐알만 한 새끼들한테 무시를 당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녀어, 근데에, 저놈의 새끼들이 나를 떡볶이집 아줌마로 보고 무시하는 거야아……. 아이고, 내가 떡볶이 팔아서 무신 부자가 되겠다고 저런 놈의 새끼들한테……. 아이고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줌마가 원망하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이** 죽고 싶도록 괴로워서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아줌마가 애끊는 소리로 우는 것이 꼭 엄마 같아서 더 그랬다. 용우가 내 등을 탁 쳤다.

“야아, 이 아줌마 진짜 독하다. 죽어도 삼천칠백칠십으로 안 준다.”

“세상에, 우리 회사 말이다. 무섭다, 무서워.”
 “왜?”

“듣자 하니, 노조 만든다고 짜르고 잡담한다고 찢라서들 데모를 한다네.”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그 빈자리에 엄마가 들어갔다고. 그러니, 엄마도 안심할 순 없잖아.”

“내가 뭘? 나야 뭐 노조도 안 할 거고 잡담도 안 할 건데.”
 “그게 문제야. 노동자가 당연히 노조 하고 일하면서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기계야, 말도 못 하게?”

“그러다 찢리면?”
 “내 말은 엄마같이 찢릴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찢리지 않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려면…….”

“그러려면?”
 “노동자끼리 단결해야지.”

“근데, 이 기집애가 갈수록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내가 찢리기라도 해봐라, 니 등록금이 나오나.”

엄마와 누나는 오늘도 ‘엄마 회사’ 이야기다.
 밖에 나갔다 온 아버지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한다. 아버지가 첼퍼덕 현관에 주저앉는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먹고살기가 왜 이리 힘드냐, 당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아버진 새로운 일거릴 끝내 못 찾은 모양이다. 잡담만 해도 일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회사에 들어간 엄마도 웬지 불안하다. 용우가 어렵게 받아낸 돈을 꺼내 본다. 돈이 돈이 아니라 웬지 자꾸만 눈물로 보인다. 저 돈 때문에 내가 울고 아줌마가 울고 엄마가 울고 아버지가 운다. 돈 때문에 울지 않는 건 무엇일까. 아줌마네 집 가게 앞에 나뭇그려진 봉숭아가 생각난다. **봉숭아는 돈 때문에 울지 않는다.** 내가 발로 차 버렸는데도 죽지도 않는다. 아, 그리고 보면 봉숭아가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센가, 그 아름다운 꽃, 봉숭아가! 그리고 보면 아름다운 것들은 힘이 센지도 모른다.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어쩌면 내가 아줌마네 가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밖에서 공부를 한 덕분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 아줌마가 그리 밋지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다.

“아이고, 아무리 세상 험해도 쥔 이쁜 것은 요것들이구나.”
 엄마는 베란다에 나가 식물들에 물을 주고 있다. 나는 돈이 든 봉투를 안방에 밀어놓고 집을 나왔다.

‘아줌마 떡볶이’ 집 봉숭아가 아직도 무사하길 바라며 나는

화분 가게로 갔다. 내가 아줌마네 봉숭아를 다시 화분에 심으려는 이유는, 내가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다. 나는 아름다워서 **힘센 봉숭아**를 닮아 넘어져도 기를 쓰고 살아나리다. 나는 화분을 안고 밤바람을 가르며 떡볶이 가게로 달려갔다.
 - 공선옥, 「힘센 봉숭아」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지 못한 것을 가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② ‘엄마’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 ③ ‘누나’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아줌마’는 ‘나’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
- ⑤ ‘용우’는 ‘나’의 밀린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아 내기 위해 아줌마와 맞서고 있다.

40. ㉠~㉤에 나타난 ‘나’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삶의 현장에서 단련된 용우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 ② ㉡: 아줌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
- ③ ㉢: 아줌마의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해 하고 있다.
- ④ ㉣: 아줌마와의 담판에서 진 용우에게 실망하고 있다.
- ⑤ ㉤: 아줌마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음을 확신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돈이 우선인 세상과 사람들의 각박한 인심을 경험한다. 그러나 ‘나’는 ‘봉숭아’를 보며 위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낀다. 이를 통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적 황폐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한층 성장하게 된다.

- ① ‘나’는 넘어진 봉숭아가 ‘천연덕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며 위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군.
- ② ‘나’가 ‘아줌마가 원망하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에 괴로워한 것은 돈이 우선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겠군.
- ③ ‘나’는 ‘봉숭아는 돈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군.
- ④ ‘나’는 ‘밖에서 공부를 한 덕분에’ 아름다운 것들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군.
- ⑤ ‘나’는 ‘힘센 봉숭아’를 닮아 정신적 황폐함을 이겨 내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유연과 최월혜의 혼례 날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납치하여 서해무릉으로 끌고 간다.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 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온다.

마침내 일 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다. 여기서 유생은 부처님에게 빌어볼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이어 부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빌었다.

[A] “소생 유연은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고 길가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노상유객(路上遊客)이 되어 떠도는 이유는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 끊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의 은덕을 내리시어 유연의 정성을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최 씨를 만난다면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 절을 중수(重修)하여 부처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원하고 절 방으로 돌아와 그 밤을 지낼 때 유생이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말하였다.

“너희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또 네 아내는 아직 빙옥(氷玉) 같은 절행을 지키며 살아 있으니 안심하여라. 그러나 네게는 아직 인연이 멀었으니 삼 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으리라. 아내를 찾게 되거든 절을 중수하여라.”

유생이 놀라 잠에서 깨어 보니 남가일몽이었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다시 절을 올리고 축원을 드린 뒤 유생은 금산사를 떠났다.

동구 밖에 나오자마자 유생은 곧바로 동네 아낙에게 고깔과 누비 바랑을 만들어 달라 하여 어깨에 걸쳐 메고 구절죽장(九節竹杖)을 짚고 길을 나섰는데 영락없는 스님의 행색이었다.

유생이 길을 나선 뒤 팔도강산 방방곡곡과 사해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산속이든 바닷가든 아니 간 곳이 없었다. 고갯마루 남쪽이나 북쪽에 들어가든지 산골짜기에 들어가든지 집집마다 하나하나 방문하여 탐문하였으니 그가 겪은 천신만고의 고생과 세상사의 모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며 어느덧 이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이때 유생은 장삿배를 따라 아니 간 데 없이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최 씨의 거처를 알 수 없었다. 또 기력도 다하여 겨우 근근이 머리 들 힘밖에 없었다. 이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B]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유연과 최 씨를 낳으시고 어찌 이처럼 서로의 연분을 막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상과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몸이 되었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겪으며 고생한 것은 모두 최 씨를 만나 연분을 잇기 위함이운데, 천지신명께서는 어찌 이다지 무심하시어 끝내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까?”

말을 마치고 유생은 정신이 아득해져 선창(船窓)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비몽사몽 사이에 문득 금산사 부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네 수액(數厄)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으므로 머지않아 최 씨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나 최 씨의 거처가 깊고 깊으니 신중하게 찾아야 하느니라. 이후 다시 몽조(夢兆)가 있을

것이다.”

유생이 깨어나 꿈속의 일을 생각해보니 바로 최 씨를 만날 수 있다는 몽조였다. 이에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 최 씨를 찾아 나섰다.

이때 도적 장군이 최 씨를 훔쳐온 뒤, 그녀가 옥 같은 얼굴에 선녀 같은 자태를 지녔음을 보고 만고의 절색이라 여겼다. 이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급히 길일을 택하여 혼례를 치르려 하자 하였으나, 최 씨가 송죽(松竹)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며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만약 위력으로 꺾박하다가는 아름다운 보옥이 부서지고 향기로운 꽃이 떨어지는 환란이 있을 것 같았다. 이에 장군은 다만 빨리 세월이 지나 최 씨가 체념하고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중략)

최 씨가 서해무릉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蓮步)를 옮김이 없었는데, 이 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계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계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 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승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연히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삿갓 밑에 옥 같은 얼굴을 한 여승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아비 유연이었다.

최 씨가 보니 낮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風霜)과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아주 놀라고 무척 기뻐하며 침통해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이 오히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남들이 유생의 정체를 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능히 진정할 수 없었으나, 옆에 계선이 있고 또 좌우의 눈과 귀가 두려워 반갑고 놀라운 기색을 역지로 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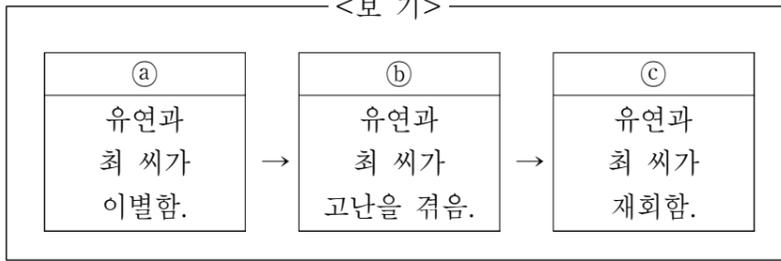
한편 유생은 온 나라를 떠돌아다녔어도 끝내 찾지 못하다가 오늘 여기서 최 씨를 만나게 되니 천만의외였다. 그때 유생은 그저 대문 밖에 앉아 좌우로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안으로부터 사람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더니 한 소저가 아리따운 비단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혹시나 하여 여러 번 살펴보니 초췌해진 얼굴과 슬픔에 젖은 모습 때문에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선명하고 참신하며 미려한 그 모습은 완연히 최 씨였다.

- 작자 미상, 「서해무릉기(西海武陵記)」 -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통해 인물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사건의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납치한 사건으로 인한 것이군.
- ② ㉡에서 유연은 ㉢를 위해 팔도강산을 헤매게 되는군.
- ③ ㉡에서 유연은 초월적 존재를 통해 ㉢를 예상하게 되는군.
- ④ ㉡에서 최 씨는 계선의 신뢰를 얻어 ㉢를 준비하게 되는군.
- ⑤ ㉢에서 최 씨는 유연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걱정하고 있군.

44.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경고하고 있고, [B]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대를 비판하고 있다.
- ② [A]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B]는 상황을 가정하며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조건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B]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⑤ [A]는 행동의 이유를 밝히며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고, [B]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대를 원망하고 있다.

45. 다음은 윗글을 읽고 문학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의문]
왜 제목을 ‘유연전’이나 ‘최씨전’이라고 하지 않고 ‘서해무릉기’라고 했을까?

[탐구 과제 설정]
‘서해무릉’이라는 장소가 지닌 의미가 중요한 것 같으니 인물별로 그 의미를 탐구해 봐야겠어.

[자료 조사]
‘서해무릉’에서 등장인물들은 개인적 욕망을 꿈꾸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한다. 또한 애정을 지켜 나가거나 소망을 실현하기도 하며 내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한다.

[탐구 결과]

(가)

- ① 수삼 년이 지나도록 유연과 떨어져 지낸 것을 보니 ‘최 씨’에게는 시련을 겪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최 씨를 납치한 뒤 혼례하려고 한 것을 보니 ‘도적 장군’에게는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잃어버린 배필인 최 씨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보니 ‘유연’에게는 소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도적 장군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마음을 돌리지 않은 것을 보니 ‘최 씨’에게는 애정을 지키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유연이 최 씨의 도움으로 용맹과 지략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니 ‘유연’에게는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